**마2232 Note**

**◆Cross check : 출0306, 히1116**

출0306. 더 나아가, 그분께서 말씀하시니라, "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[엘로힘:엘로아흐(신성,하나님,신)의 복수형,신(神)들, (복수형으로 관사와 함께 사용되어) 지존하신 하나님, 높은 관리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말, 천사들,매우 위대한] 곧, 아브라함의 하나님, 이삭의 하나님, 야곱의 하나님이니라", 이에 모세가 그의 얼굴을 숨기니라, 이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두려웠음이라.

히1116.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좋은 본나라를, 다시 말해서, 하늘의 것을 원하느니라,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우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느니라, 이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한 성(城) [폴리스:(크든지 작든지 성벽으로 싸인)읍(邑),도시(都市),시,도시국가]을 마련하셨음이라.